*사진 출처 : 하늘드림교회

numbers
vol. 324

소형교회 실태 조사(1) : 성도편

소형교회 중 현재 성장하는 교회 15%!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① 탈모 실태 및 인식
② 한국인의 건강수명

2026. 2. 24.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소형교회 중 현재 성장하는 교회 15%!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난 2월 10일, 강소교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전국의 출석교인 50명 미만 교회 담임목사와 성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형교회 목회자 및 성도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호(성도편)와 다음 호(목회자편)에 걸쳐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에서 현재 출석교회의 교인 수 변화를 보면 85%의 소형교회가 감소(42%) 또는 변화없음(43%)이라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소형교회가 쇠퇴/정제 국면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소형교회 중 성장하는 교회는 15%에 그쳤다.

한편 예장통합교단 교세 현황(2024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교회 중 출석교인 50명 이하 교회가 58%로 절반을 넘어선다. 이미 소형교회는 한국교회의 주변이 아니라 다수다.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서 소형교회는 단순히 '작은 교회'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작지만 강한 교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이번 〈넘버즈 324호〉가 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작은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교회 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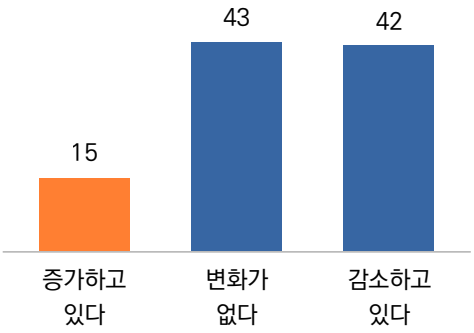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 분	소형교회 성도조사	소형교회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전국의 50명 미만 소형교회 출석하는 성도	전국의 50명 미만 소형교회 시무하는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400명(유효표본)	총 300명(유효표본)
조사 기간	2025년 09월 19일~2025년 10월 13일	2025년 09월 22일~2025년 10월 3일
표본 추출	-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 현황 조사'에 근거하여 모집단 비율을 추출함)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의뢰 기관	하나님나라복음DNA네트워크,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수행 기관	㈜지앤컴리서치	

01 [소형교회 현황 및 사역]
소형교회 중 현재 성장하는 교회 15%!

- 소형교회 성도에게 출석교회의 교인 수 변화를 물은 결과, '감소' 42%, '변화 없음' 4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은 15%에 그쳐, 전반적으로 소형교회가 쇠퇴 또는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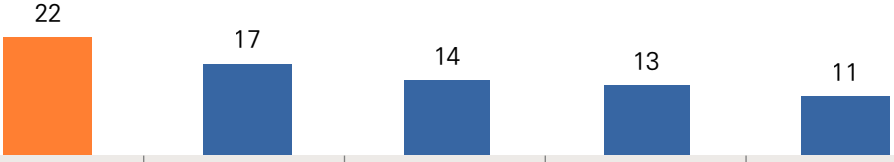
[그림] 현재 출석교회 교인 수 상태 (소형교회 성도, %)



02 [소형교회 선택과 평가]
소형교회 출석 이유, '관계'로 시작해 '가치/따뜻한 분위기'에 정착!

- 소형교회 성도들이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아는 사람이 다녀서'(22%)였다. 이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17%),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좋아서'(14%) 등의 순이었다. 인적 네트워크가 소형교회 유입의 가장 강력한 통로임을 보여준다.
- 단 '가족/지인'이나 '거리' 때문에 출석하는 성도는 '교회 지향 가치', '따뜻한 분위기' 등 교회 내적 매력에 이끌린 성도보다 타교회로의 이탈 의향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 이는 소형교회가 성도를 붙잡는 힘은 물리적 접근성이 아닌, 교회만의 선명한 정체성과 따뜻한 공동체성에서 나옴을 시사한다.
- 한편 출석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경우 '신앙 성장' 요인을 상대적으로 높게 꼽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소형교회 성도,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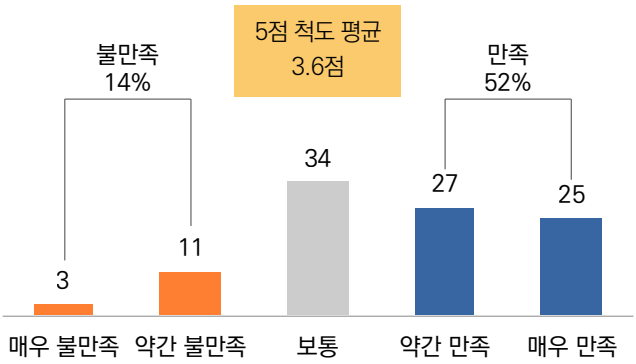
		가족/아는 사람이 다녀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좋아서	거리가 가까워서	교인들의 따뜻한 분위기가 좋아서
다른 교회로 옮길 의향	없음	20%	18%	19%	9%	13%
	있음	29%	15%	6%	21%	9%
출석 교인 수 증감	증가	20%	29%	15%	1%	10%
	감소	25%	16%	16%	15%	10%

제자훈련과 소그룹 활동이 소형교회 만족도를 높인다!

- 소형교회 성도들의 교회 만족도(매우+약간)는 52%였고, 5점 만점에 3.6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을 보였다.
-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73%), 소그룹에 자주 참여하는 경우(70%) 그리고 제자훈련이 있는 교회(65%)에서 성도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교회 만족도 (소형교회 성도,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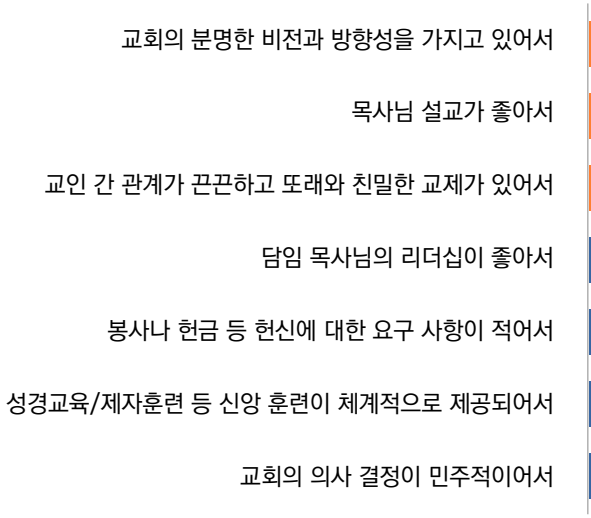
계층별 (만족도 비율)

		만족도
소그룹	자주참여	70%
	참여안함	20%
제자 훈련	있음	65%
	없음	45%
교인 수 증감	증가	73%
	감소	45%

소형교회 만족의 3가지 핵심, 비전/설교/교제!

- 현재 교회 만족 이유를 확인한 결과, '교회의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39%), '목사님 설교'(37%), '교인 간 친밀한 교제'(35%)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 만족 요인이 어느 한 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방향성', '설교', '공동체성' 세 가지 측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장하는 교회의 경우 교회의 '비전' 요인이 만족 요인으로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림] 소형교회 만족 이유 (만족 성도,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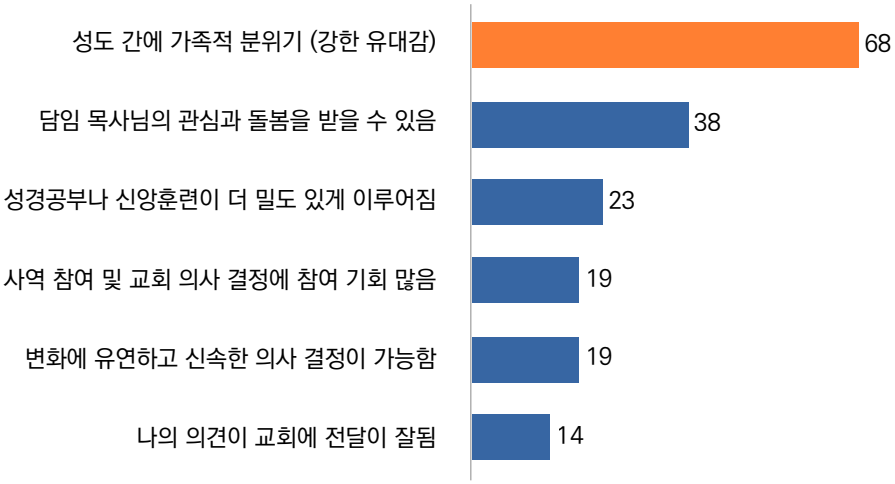


	교인 수 증가 교회	교인 수 감소 교회
교회의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46%	32%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35%	39%
교인 간 관계가 끈끈하고 또래와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39%	39%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좋아서	17%	23%
봉사나 헌금 등 헌신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적어서	11%	17%
성경교육/제자훈련 등 신앙 훈련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서	11%	17%
교회의 의사 결정이 민주적이어서	19%	8%

소형교회의 장점 → 강한 유대감!

- 소형교회 성도들이 체감하는 소형교회의 장점은 단연 '성도 간에 가족적 분위기'(68%)였다. 이는 2위인 '담임 목사님의 관심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음'과도 큰 격차를 보여, 소형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 내의 강한 유대감이 큰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 특히 상위권에 랭크된 '가족적 분위기'와 '담임 목사님의 돌봄'은 성도들을 교회에 결속시키는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성장하는 교회의 경우 성도들의 신앙 훈련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

[그림] 소형교회의 장점 (소형교회 성도, 1+2순위, 상위 6개, %)



교인 수 증가 교회	교인 수 감소 교회
71%	73%
32%	35%
36%	16%
20%	19%
16%	18%
8%	18%

소형교회 불만족 이유, '설교'와 '비전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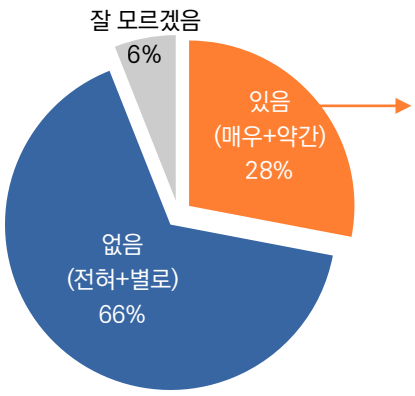
- 현재 교회에 불만족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앞선 만족 이유와 마찬가지로 '목사님 설교'(32%)와 '교회 방향성과 비전'(28%)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나타났다.
- 이는 소형교회일수록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의 정체성이 성도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임을 방증한다.

[그림] 소형교회의 불만족 이유 (불만족 성도, 1+2순위, 상위 7개, %)

소그룹 활동자/제자훈련 받은 자, 교회 안 떠난다!

- 소형교회 성도들에게 현재 출석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는지 물은 결과, 성도 10명 중 3명꼴인 28%가 '이탈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교회 이탈 의향률은 '출석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3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 현재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거나 제자훈련을 받은 자는 이탈의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현재 교회 이탈 의향 (소형교회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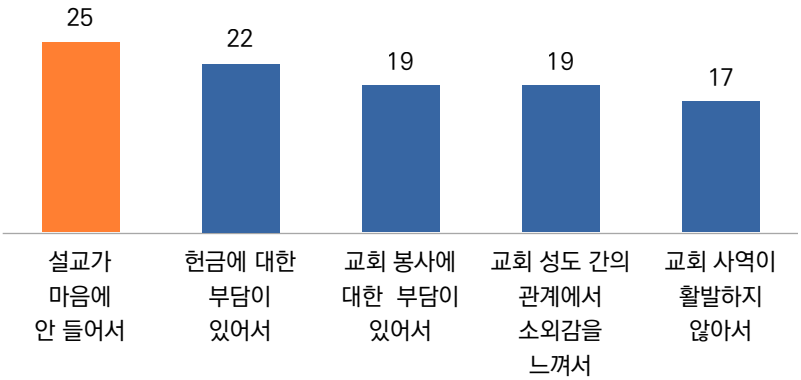
계층별 분석

이탈 의향 있음 (매우+약간)		
소그룹	자주참여	21%
	참여안함	48%
제자훈련 받은 경험	있음	48%
	없음	52%
교인 수 증감	증가	10%
	감소	39%

소형교회 이탈 이유, '설교 불만'!

- 교회 이탈을 고려하는 이유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25%), '헌금에 대한 부담'(22%), '봉사에 대한 부담'(19%), '관계에서의 소외감'(19%) 등 복합적 요인이 고루 나타났다.
- 이는 영적 공급과 사역적 의무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설교를 통해 영적 채움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와 헌금의 의무만 가중될 경우, 성도는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보다 탈진과 소외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교회 이탈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 (이탈 의향 성도, 1+2순위,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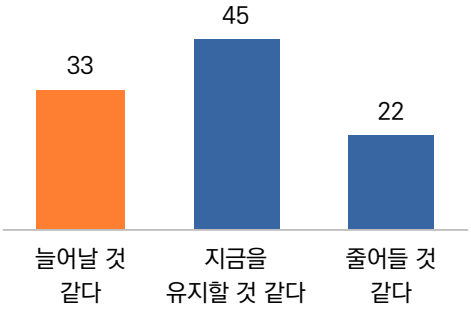


03 [소형교회 전망과 과제]
소형교회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 심화 예상!

- 앞서 현재 소형교회는 침체(42%) 또는 정체(43%)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출석교회 교인 수에 대한 소형교회 성도들의 전망은 어떨까?
- 향후 출석교회 교인 수에 대한 전망은 '유지할 것 같다'(4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감소'(22%)보다는 '증가'(33%)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11%p 높게 나타났다.
- 한편 현재 교회의 출석 교인이 증가하는 경우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고, 반대로 감소하는 교회의 경우, 미래에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향후 소형교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향후 출석교회 교인 수 예상 (소형교회 성도,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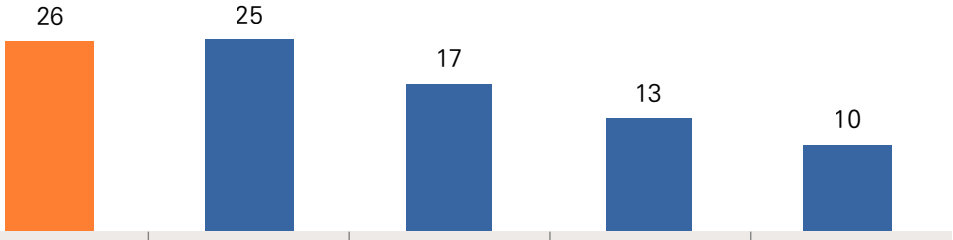
출석 교인 수 증감별

현 교인 수	늘어날 것	유지할 것	줄어들 것
증가	82%	18%	0%
유지	33%	62%	5%
감소	15%	38%	47%

향후 소형교회 강화 전략 ⇒ 예배와 전도 그리고 제자훈련!

- 소형교회 성도들이 꼽은 향후 강화 과제 1순위는 '은혜로운 예배'(26%)와 '전도 활성화'(25%)였다. 이는 소형교회가 나아가야 할 두 축이 내실(예배)과 확장(전도)에 있음을 시사한다.
- 성도들의 특성에 따라 강화 포인트가 갈렸는데, 신앙 수준별로 보면 신앙 단계가 가장 높은 4단계 성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성경교육/제자훈련 강화'(23%)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현재 교회 생활에 불만족하는 성도의 경우, 43%가 은혜로운 예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예배의 질이 성도의 만족도와 직결됨을 다시금 보여준다.
- 한편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성경교육/제자훈련 강화' 지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소형교회가 강화해야 할 점 (소형교회 성도, 상위 5개, %)



		은혜로운 예배	전도 활성화	성도 간의 진실한 관계 형성	성경교육/ 제자훈련 강화	봉사/사역의 확대 및 활성화
신앙단계	1단계	24%	24%	27%	8%	10%
	2단계	31%	23%	15%	9%	10%
	3단계	22%	27%	14%	16%	11%
	4단계	25%	28%	14%	23%	7%
교회생활 만족도	불만족	43%	6%	17%	14%	11%
	보통	30%	20%	%	11%	10%
	만족	18%	34%	14%	15%	9%
출석 교인 수 상황	증가	22%	18%	15%	19%	12%
	유지	21%	28%	19%	13%	12%
	감소	31%	25%	16%	11%	6%

넘버즈 인사이트

이번호 요약

1. 소형교회 중 현재 성장하는 교회 15%!

- 소형교회 성도에게 출석교회의 교인 수 변화를 물은 결과, '감소' 42%, '변화 없음' 4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성장하는 소형교회는 15%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소형교회가 쇠퇴 또는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2. 소형교회 만족의 3가지 핵심, 비전/설교/교제!

- 현재 교회 만족 이유로는 '교회의 분명한 비전'(39%), '목사님 설교'(37%), '교인 간 친밀한 교제'(35%)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3. 소형교회 불만족 이유, '설교'와 '비전 부재'!

- 현재 교회에 불만족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목사님 설교'(32%)와 '교회 방향성과 비전'(28%)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데이트 브라우닝 저, 옥당)

관련 성경 구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교회가 직면한 쇠퇴와 정체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성도의 85%가 교세의 감소나 정체를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소형교회가 더 이상 '성장 단계의 과정'이 아닌, 그 자체로 고유한 생존 전략을 갖추어야 할 '독립적 주체'임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정체 국면을 돌파하는 핵심 동력이 '작기에 가능한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관계가 소형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하는 주요 이유이며, 소그룹/제자훈련이 소형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 이탈 의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형교회만이 할 수 있는 '밀착 케어'가 주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성도들의 불만족 이유가 '설교'와 '비전 부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성도들이 규모의 작음은 수용할 수 있어도, 영적 빈곤과 공동체의 비전/목적 상실은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형교회 목회는 '작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앞에서 언급한 분명하고 명료한 비전 아래 소그룹/제자훈련 중심으로 성도들에 대한 밀착케어를 통해 '강소교회(强小敎會)'로의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결국 소형교회의 회복은 숫자의 확장이 아닌 관계의 깊이와 영적 질에서 결정된다.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공동체의 영적 갈증을 채우고, 성도들은 소그룹과 제자훈련을 통해 '작지만 강한 공동체'를 구축할 때,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형교회가 생존하고 오히려 성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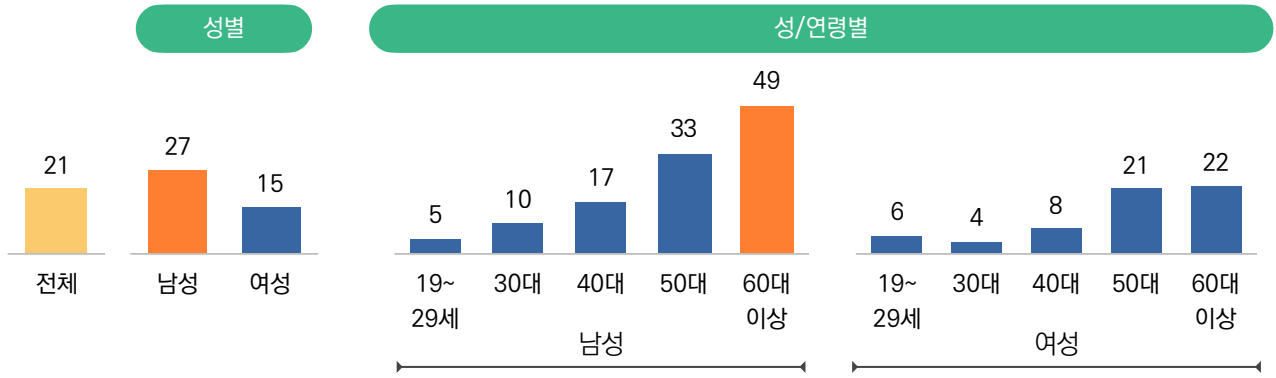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탈모 실태 및 인식
2. 한국인의 건강수명

[탈모 실태 및 인식]
60대 남성의 절반, 탈모 증상 겪고 있다!

- 한국의 탈모 인구는 어느 정도일까? 대한탈모치료학회 등에서는 국내 탈모 인구를 1,000만 명 정도(약 20%)로 추산하는데, 최근 한국갤럽의 탈모 관련 조사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현재 탈모 증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 21%가 '탈모 증상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 성별로는 '남성'(27%)이 '여성'(15%)보다 탈모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절반에 달하는 49%가 현재 탈모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현재 탈모 증상 여부 ('탈모 증상 겪고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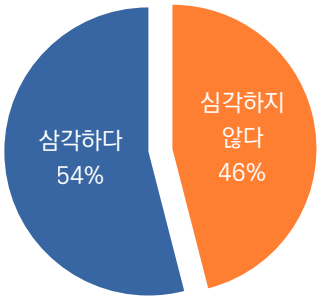


※출처 : 한국갤럽, 탈모(脫毛) 관련 조사 – 2013/2019/2025년(갤럽리포트), 2026.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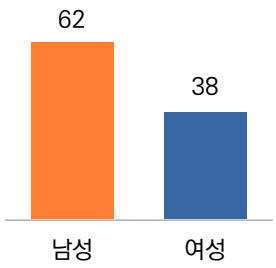
탈모인 절반 이상, 내 탈모 증상 심각하다!

- 탈모인들에게 본인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물은 결과, 절반 이상(54%)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탈모인의 경우 62%가 자신의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여성(38%)에 비해 탈모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훨씬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탈모 증상 심각성 인식* (탈모인)



[그림] 성별 탈모 증상 '심각하다' 인식 비율 (탈모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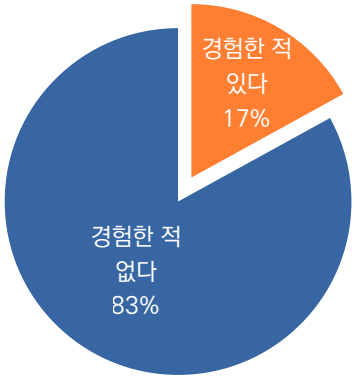


※출처 : 한국갤럽, 탈모(脫毛) 관련 조사 – 2013/2019/2025년(갤럽리포트), 2026.01.29.
*4점 척도

탈모인 6명 중 1명, 탈모로 우울감·대인 기피 등 심리적 문제 겪어!

- 탈모인들에게 탈모 증상 때문에 자신감 저하, 우울감, 대인 기피 등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탈모인의 17%인 6명 중 1명가량은 '탈모 때문에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이는 탈모가 단순한 외모의 변화를 넘어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그림] 탈모 증상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경험 여부 (탈모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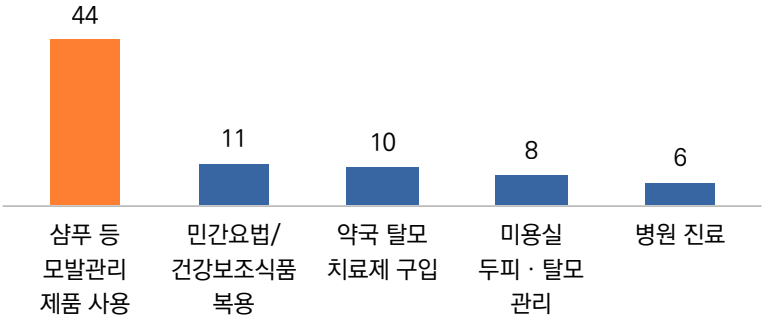


※출처 : 한국갤럽, 탈모(脫毛) 관련 조사 – 2013/2019/2025년(갤럽리포트), 2026.01.29.

탈모 증상 완화 방법, '샴푸 등 모발관리 제품 사용(44%)' 가장 많아!

- 탈모인들이 탈모 증상 완화를 위해 취한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샴푸 등 모발 관리 제품 사용'(44%)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민간요법/건강보조식품 복용'(11%), '약국 탈모 치료제 구입'(10%) 등의 순이었다.

[그림] 탈모 증상 완화 시도 방법 (탈모인, 복수응답,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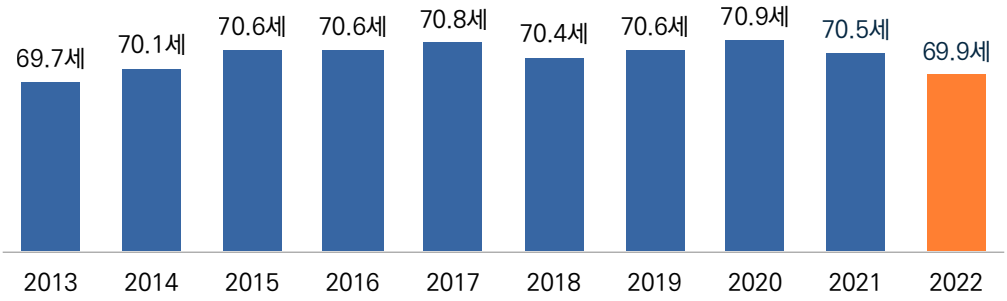


※출처 : 한국갤럽, 탈모(脫毛) 관련 조사 – 2013/2019/2025년(갤럽리포트), 2026.01.29.

[한국인의 건강수명]
한국인의 건강수명, 69.9세!

- 우리 국민은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한 상태를 몇 살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건강수명' 변화 추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건강수명 통계집'을 통해 살펴본다.
-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13년 69.7세에서 2014년 이후 8년간 70세 이상을 유지했으나, 2022년 69.9세로 하락하며 8년 만에 다시 70세 아래로 떨어졌다.

[그림] 건강수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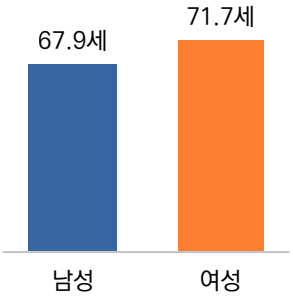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수명 통계집, 2025.01.

여성의 건강수명(71.7세), 남성(67.9세)보다 4세가량 더 길어!

- 성별 건강수명을 보면 남성 67.9세, 여성 71.7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질병/장애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4세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성별 건강수명 (2022)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수명 통계집, 2025.0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회 일반

계엄의 또다른 그늘…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복권 산 국민들
연합뉴스_2026.2.22.

유튜버 1인당 연 수입 7천만, 4년 만에 25% ↑…상위 1%는 13억
연합뉴스_2026.2.16.

일상 파고든 AI영상 … 10명 중 6명 "구분 어려워"
매일경제_2026.2.20.

아동 • 청소년 • 청년

Z세대, 성관계보다 '이것' 선호…67%가 선택한 뜻밖의 답은?
헬스조선_2026.2.22.

[벌어진 격차, 멀어진 세대], (조선일보)

[1] 2030 줄고 4050 늘고… 자산 격차 역대 최대 _2026.2.4.

사다리 끊긴 2030… 원룸 월세 100만원, 집 사기는커녕 짐 싼다 _2026.2.4.

사다리 올라탄 4050… 서른에 마포 갭투자, 20억 불린 김부장 _2026.2.4.

"나만 거지될라"… 'FOMO'에 영끌했다가 빚더미 _2026.2.4.

[2] 4050 월급 15% 늘 때 2030은 5%에 그쳤다 _2026.2.5.

"자식 둘 합쳐도 내 월급 반도 안 돼"… 퇴직 앞둔 대기업 아빠의 한숨 _2026.2.5.

"월세 내야죠"… 청년 N잡러, 10년새 63% 늘어 _2026.2.5.

[3] 서울 vs 지방… 대기업 90%가 수도권, 지역 청년은 기회조차 없다 _2026.2.6.

대기업 vs 중기… 월급 차이 20대 1.5배, 40대 땐 2배 이상 벌어져 _2026.2.6.

'집콕' 은둔 청년 사회적 비용 年 5.3조… 1인당 983만원 _2026.2.6.

5억 vs 0.5억… 청년 자산도 '극과 극' _2026.2.6.

[4] 46세 되어서야 첫 주택 구입… 부모 세대보다 14년 늦어진다 _2026.2.19.

취업 장수생 23만명… 30대 캥거루족, 10년새 2배 가까이 늘어 _2026.2.1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노인

은퇴 후 자영업, 경험 유무 따라 月소득 3배 차이
국민일보_2026.2.22.

쉬지 말고 노세요…은퇴 뒤 '돈 없이' 노는 법
한겨레_2026.2.20.

국내 7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 '복부비만'
조선일보_2026.2.19.

경제 • 기업

삼성전자, 신기록 행진 이어간다…분기 30조 영업익 가시권
연합뉴스_2026.2.16.

"연봉 올려줄게, 돌아올래?"…갑작스런 '재입사' 권유, 왜?
한국경제_2026.2.20.

"월1000씩 번다하니, 동창회 못가겠습니다"…대기업·중기 격차최대
매일경제_2026.2.23.

기독교 • 종교

헌금 줄고 양극화 심화…소형교회 위기
기독신문_2026.2.10.

흔들리는 다음세대 "성인 되면 교회 떠나겠다"
기독신문_2026.2.11.

"강소 교회의 핵심, '비전'과 '관계'에 있다"
기독교연합신문_2026.2.12.

트렌드

"지금 안 사면 늦는다"…'40분에 50만원' 2030 홀린 강의 실체 [부동산 강의지옥 中]
한국경제_2026.2.15.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윰, 크리스챤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PayPal

후원 명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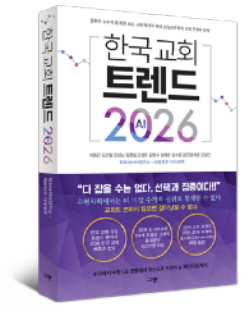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백양로교회(담임목사 정학재), 거룩한빛광성교회(담임목사 곽승현), 평촌교회(담임목사 김소리)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Upward	Forward	Inward	Outward	On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섬김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책 구입 안내

연구소 소식

AI 코파일럿 시대 디지털 목회 전략 웨비나

저희 연구소와 MOU기관인 **라잇나우미디어**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디지털 전략 웨비나로 목회자님을 초청합니다.

1) 주제 : AI 코파일럿 시대, 디지털 목회 전략
2)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14:00~16:00
3) 장소 : Zoom (신청자에 한해 링크를 공유)
4) 참가비 : 무료
5) 문의 : 1533-7104

웨비나 신청하기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출간 (비매품)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7」을 출간하였습니다. 책 제작을 위해 재정 후원을 해주신 한소망교회(원로목사 류영모, 위임목사 최봉규)에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에게 책을 발송합니다. 책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22-0726)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